



# 내 손은 동물농장!

커다란 코끼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멋진 상아를 보니 수코끼리네요. 자글자글한 피부 주름이 코끼리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요. 가만, 코끼리의 귀를 보세요! 진짜 코끼리가 아니라 그림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코끼리의 주름까지 생생하게 묘사한 것일까요? 몰라도, 알아도 감쪽같은 코끼리의 정체를 밝혀 봅시다.

담당★오가희 기자·solea@donga.com  
사진★귀도 다니엘(Guido Daniele, www.guidodaniele.com)



**악어**  
 악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손을 어떻게 만들면 이런  
 악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매의 눈으로 손가락 위치를  
 찾아 보세요.



**호랑이**  
 수풀에 납작하게 엎드려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가  
 보여요! 반만 말아진  
 주먹이 호랑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투칸**  
 주황색 부리와 흰 목이  
 매력적인 이 새는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투칸'이라는 새예요. 거대한  
 부리가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많은 유공성  
 조직이라 가볍습니다.



다니엘 작가의 아들인 미카엘  
 제임스예요. 다니엘 작가의  
 핸드 페인팅은 대부분 아들의  
 손에 그려지지요.

## 손 위에서 살아나는 그림

진짜 코끼리 피부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코끼리를 사람의 손에 그렸기 때문이에요. 주먹을 말아줘서 코끼리의 윤곽을 만든 다음,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지요. 손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핸드 페인팅'이라고 불러요.

섬세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탈리아의 미술가 '귀도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작가는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분장용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독수리와 얼룩말을 보세요! 금방이라도 손끝에서 동물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손에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다니엘 작가는 대부분의 작품을 자신의 아들인 미카엘 제임스의 손에 그린다고 해요. 정성들여 그림을 그린 뒤, 사진을 찍고 지운답니다.

**흰머리독수리**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독수리예요.  
 검지로 날카로운 윗부리  
 모양을 만들었어요.



## 짧은 꼬리를 찾아라!

다니엘 작가는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종종 핸드 페인팅을 선물하곤 해요. 사람의 인상을 보고 어울리는 동물을 그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눈매가 매혹적인 여성에게 그녀와 닮은 표범을 그려 줬어요. 그림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즐겁고, 닮은 동물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요.

20년 가까이 핸드 페인팅 작업을 해온 다니엘 작가는 앞으로 도 그리고 싶은 게 많다고 해요. 또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어린이과학동아> 독자를 만나고 싶다고도 전해 왔어요.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볼까요?

다니엘 작가가 만난 사람들이 손에 그림을 선물 받았어요. 작가는 손의 주인과 닮은 동물을 찾아 재미있게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엄지 손가락에 나비 더듬이를 만들고 손바닥에 커다란 나비 날개를 그렸습니다.

눈이 동그란 푸마가 우릴 바라보고 있어요. 초록색 눈이 아주 예쁘지만 사실은 무서운 맹수랍니다.



미니 인터뷰

### “작은 동물도 소중한 친구예요”

귀도 다니엘(Guido Daniele)

Q 핸드 페인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직접 카드를 그려서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곤 했지요. 대학교에서는 \*조소를 전공했지만,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해 1998년에 처음으로 핸드 페인팅에 도전했어요.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바로 '재규어를 운전하는 재규어'였답니다. 고양이과 맹수인 재규어가 재규어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림이었지요.

Q 작품들이 정말 멋져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작품을 하나 그릴 때마다 온갖 열정을 쏟아요. 한 번에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야 가장 멋진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모든 그림을 사랑합니다.

Q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작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전체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들 중 하나라도 없다면 하나밖에 없는 '집(지구)'이 망가져 버릴 거예요.

Q <어린이과학동아>에도 주변에 있는 생물을 탐사하는 '지구사랑탐사대'가 있어요. 지구사랑탐사대원에게 조언을 해 주세요.

그동안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아주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구사랑탐사대원도 분명 아주 멋진 친구들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멋진 행동을 하길 응원할게요!

\*조소 : 재료를 깎거나 빚어서 만드는 예술.



푹긋하게 선 귀와 뽀족한 주둥이로 미루어 여우를 그린 것 같네요! 까만 수염이 인상적이지요?



다니엘 작가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장갑을 낀 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 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동물을 그리는 미술가인 만큼, 다니엘 작가는 실제로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2011년에는 침팬지 연구와 보호로 잘 알려진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그녀의 손에 침팬지를 그려 주기도 했어요. 제인구달과 침팬지 사진은 무려 2500유로(약 3120만 원)에 팔렸고, 이 판매수익은 모두 침팬지 보호를 위해 제인구달연구소에 기부했지요. 독일에서 유명한 배우인 랄프 뮐러와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경매를 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작가는 어린이와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핸드 페인팅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 주면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거든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어린이과학동아> 친구들도 한번 직접 그려 보세요~! 😊



검은 갈기가 달린 멋진 얼룩말이에요. 재치있게도 단추로 눈을 만들었어요.



밀짚모자를 쓴 투칸이에요. 부리 끝에 검은 반점까지 섬세하게 묘사했어요.



평생을 침팬지와 살아온 제인 구달 박사의 손에도 침팬지가 그려졌어요. 이 사진으로 얻은 수익금은 제인구달 연구소로 보내져 침팬지를 보호하고 연구하는 데 쓰였답니다.



양손을 꼭 펴서 날아가는 나비를 그렸어요. 어린이가 상상력을 발휘해 직접 예쁘게 그렸어요.